

I. 상담실적

- 상담기간: 2025. 4. 17.(목) 07:00 ~ 22:00
- 상담건수: 546건

II. 주요의견 내용

○ 방송 호평(2명)

-프로그램명 : 일일드라마 「대운을 잡아라」

-방송일시 : 2025. 4. 16.(수) 1TV (20:30-21:00)

너무 특이하고 재미있는 드라마이다. 작가가 진짜로 대운을 잡겠다는 심정으로 글을 쓴 것 같다.

○ 편성 제언(2명)

-프로그램명 : 「중계방송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」

-방송일시 : 2025. 4. 16.(수) 1TV (15:00-16:00)

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왜 이런 방송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. 세금을 들여 특검을 했지만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었고,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했다.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기에 일반인들은 거부감이 있다. 일반인들의 생각과 방송국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.

III. 청원현황

- 신규청원
 - 없음.
- 이슈청원 및 특이사항
 - 없음.

※ 참고: KBS홈페이지->시청자권익센터->시청자청원(<http://petitions.kbs.co.kr>)

IV. 일일 상담내용

1. 상담실적 : 총 546건

○ 형태별 분류

전화	인터넷	우편·FAX	방문	ARS ¹⁾	계
310	22	-	-	214	546

○ 채널별 분류

1TV	2TV	라디오	DMB	인터넷	非채널	계
259	172	16	-	-	99	546

○ 내용별 분류

의견제시	단순문의	기타	계
89	457	-	546

○ 분야별 분류

방송	기술	경영	기타	계
419	5	55	67	546

시청자 의견	문 의
<p>【편 성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중계방송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」 - 편성 제언 <p>【보 도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KBS 뉴스 12」 - 보도 제언 <p>【시사·교양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한국인의 밥상」 - 방송(소재) 추천 <p>【드라마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일일드라마 「대운을 잡아라」 - 방송 호평 ○ 수목시트콤 「빌런의 나라」 - 출연자 호평 <p>【라디오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오늘 아침 1라디오」 - 방송 호평 ○ 「바른 말 고운 말」 - 방송(소재) 추천 	<p>【방 송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아침마당」 - ‘출연자’ 연락처 문의 38건 ○ 「6시 내고향」 - ‘산야초 누룽지’ 연락처 문의 25건 ○ 「일일드라마 신데렐라 게임」 - ‘편성’ 문의 13건 ○ 「2TV 생생정보」 - ‘삼겹살’ 연락처 문의 13건 ○ 「한국인의 밥상」 - ‘진행자’ 문의 12건 <p>【기 술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난시청」 문의 2건 ○ 「디지털전환」 문의 2건 외 1건 <p>【경 영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「홈페이지」 문의 16건 ○ 「수신료」 문의 16건 ○ 「프로그램 구입」 문의 16건 ○ 「전화교환」 문의 6건 ○ 「사업 및 행사」 문의 건 1건 <p>【기 타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한전 문의사항 포함 67건

1) ARS 항목 상세내용: 제보, 홈페이지문의, 프로그램 구매문의, 출연자 및 출연업체 전화번호 안내

2. 프로그램별 의견

의견	세부내용
[편 성]	
편성 제언	<p>○ 「중계방송 세월호 참사 11주기 기억식」 (2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4. 16.(수) 1TV (15:00-16:00) - 사고가 발생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왜 이런 방송을 편성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. 세금을 들여 특검을 했지만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었고, 유족들에게 충분한 보상도 했다. 나라를 지키다 돌아가신 것도 아니기에 일반인들은 거부감이 있다. 일반인들의 생각과 방송국 사이에 괴리감이 크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 외</p>
[보 도]	
보도 제언	<p>○ 「KBS 뉴스 12」 “사교육 카르텔’ 대거 적발...“교사가 학원에 문제 팔아””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4. 17.(목) 1TV (12:00-13:00) - 현직 교사가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고 돈을 받은 것이 적발됐다는 보도를 시청했다. 그런데 그 문제를 풀고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에 대한 언급은 없어 아쉬웠다. 이런 불공정한 사교육 현실에 대해서도 보도해 주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[시사·교양]	
방송(소재) 추천	<p>○ 「한국인의 밥상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TV (목) (19:40-20:30) - 한국 사람들의 다양한 먹거리가 소개되는 점이 좋다. 그래서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점이 있는데, 기사식당을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다. 택시 기사가 아니더라도 많이 찾는 식당인데, 일단 가격이 저렴하고 반찬이 다양하다. 전국의 기사식당을 소개하는 특집을 제작하면 시청률이 잘 나올 것 같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
의견	세부내용
방송(소재) 추천	<p>○ 「바른 말 고운 말」 (1명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R (월-토) (06:56-06:58) - 출근할 때 늘 청취하는 방송이다. 방송에서 바른 말 고운 말을 사용하자고 하면서, 뉴스에서는 ‘트럼프 관세 폭탄’ 같은 표현을 사용한다. ‘높은 관세’ 등으로 순화할 수 있는 부분이다. 공영방송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 정제된 언어의 중요성을 다뤄주기 바란다.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※의견제시자 : 익명</p>
[기타상담]	
수신료 및 난시청	<p>⊙ 수신료 및 난시청에 대한 상담건수: 18 건</p>